

북한 전통복식에 대한 연구

홍나영 · 김여경*

이화여대 의류직물학과 교수 · 이화여대 의류직물학과 석사졸업*

북한에서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복식 양식을 조선옷이라고 하는데 다소 상이한 특징을 보이기는 하나 남한의 전통복식 양식인 한복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 복식의 문화적 배경과 해방이후 현재까지 변화되어온 조선옷의 역사적인 전개를 살펴봄으로써 북한 전통복식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북한은 우리와 분단 이전까지는 동일한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였으나 남한과 달리 모든 사회현상이 사회주의의 조직원리에서 구성되어 있는 사회주의 국가이다. 따라서 전통복식이라는 개별의 사회현상도 사회의 정치·경제·문화적인 여러 요인들과 긴밀하게 맞물려있다. 특히 1950년대 중반 이후 주체사상을 국가이념의 근간으로 하여 복식문화를 위시한 모든 문화를 그 위에서 세우고 있다. 의복의 소재나 생산 등의 경제적인 측면 뿐 아니라 미의식까지 모든 의생활을 주체사상 안에서 영위하고 있다.

북한 사회의 변화에 따른 전통복식의 역사적 흐름을 해방이후 현재까지의 시기를 4시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제 1기는 해방 후 전쟁 전까지 국가건설의 시기로 왜색타파와 봉건폐습을 철폐하면서 조선옷을 간편하게 개량하였다. 제 2기는 전쟁과 전쟁복구의 시기로 간소한 복장이 일반적이었으며 궁핍한 의생활을 극복하는 것이 주된 관심이었다. 이 시기까지는 이전까지와 유사하고 복식변화의 방향도 남한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제 3기인 1960·70년대에 들어서면서 주체사상의 확대와 사회주의 체제 정립에 따라 현재와 같은 북한 특유의 복식문화를 형성하게 되었다. 제 4기는 1980년대 이후로 서구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개방화에 따라 의복에 있어서 현대적인 미감을 강조하고 있으며 전과 다른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독자적인 사회주의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우리 식문화와 이에 따른 조선옷의 전통적인 차림

을 강조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조선옷은 일상복의 착용이 줄어들고 행사복으로서 착용이 강조되면서 장식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실루엣은 전통의 항아리형에서 A라인에 가까운 형태로 변화되었다. 저고리의 배래가 좁고 치마의 폭이 그다지 넓지 않다. 소재와 색상은 화려하고 원색적인 색상을 선호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북한은 전래의 민족적인 복식양식을 고수하고자 하였으므로 변화의 방법이 다소 제한적이었다. 스팅글(spangle)이나 리본 등을 덧붙이거나 다른 소재를 조합하는 등 주로 기존의 구성요소 위에 부가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의복 구성은 전통적인 양식을 고수하는 범위에서 양복의 구성법을 도입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현재 남한과 상이한 복식미를 형성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시기의 남북 대립상황으로 인하여 연구자가 접할 수 있는 자료가 한정되어 있었고, 남북한 각각의 입장에 따라 자료의 견해차이가 큰 것이 본 연구의 제한점이었다. 또한 북한사회에 대한 연구자의 이해부족으로 복식문화에 대한 심도있는 고찰이 어려웠다. 그러나 북한 전통복식문화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여겨진다.